

## 1930~40년대 홍기문의 역사연구

정 민 영 \*

- 
- I. 머리말
  - II. 역사연구의 배경
    - 1. 선대와 지인의 영향
    - 2. 해외유학과 민족운동
  - III. 역사 관련 저술과 역사인식
    - 1. 사론과 연구방법론
    - 2. 신채호 사론의 비판
    - 3.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
  - IV. 맺음말
- 

### I. 머리말

洪起文(1903~1992)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공간에서 활동하다 월북한, 한국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살다간 인물이었다. 그의 조부는 1910년 庚戌國恥를 당해 비분 끝에 자결 순국한 洪範植(1871~1910)이고, 부친은 민족운동가이자 소설 『임꺽정』의 작가로 유명한 洪命憲(1888~1968)이다. 이로부터 이들 三代의 생애는 한국근현대사의 흐름을 집약

---

\* 충북교육박물관 학예사

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반일정신을 가지고 민족의식을 형성한 홍기문은 중국 유학 중 조국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써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一月會·東京朝鮮無産青年同盟會 등 사회운동에 가담하였다. 귀국 후에는 신간회 경성지회의 주요인물로 활동하는 등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홍기문은 국학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국학은 국어학·국문학·국사학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국학 연구는 근대로의 이행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역사성과 시대성을 띠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홍기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자신의 학문을 일치시킨 학자로서 초창기 국어학사에 뚜렷이 남는 저작들을 발표했으며, 국문학과 국사학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홍기문이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국학자로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다. 해방 후 그가 월북한 관계로 그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의 부친 홍명희와 함께 그에 관한 일체의 관심이나 논의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관한 연구는 남북관계가 진전된 이후인 1990년대 중반부터 그의 어문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먼저 어학분야의 논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혜경과 양명희는 홍기문의 『조선문법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문법 서술의 특성을 밝히고, 그의 국어연구가 가지는 국어학사적 위치를 설정하였으며, 강현규는 현대의 과학적 어원 연구 방법을 통해 홍기문의 「語源의考證」, 「歷史와 言語의 關係」 등에 나타나는 어원에 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상혁은 『훈민정음』의 최초 번역자를 홍기문으로 보고,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그의 번역이 지니는 국어학사적 의의를 평가하였다.<sup>1)</sup>

1) 장혜경, 「홍기문 문법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강

국문학 분야에서는 홍기문의 『향가해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철과 서재극은 『향가해석』에 나타나는 해석상의 논란점을 검토했으며, 향가 연구에 있어서 그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였다.<sup>2)</sup> 홍기문의 저술에 대한 것으로는 김지남의 연구가 있는데, 홍기문의 출생과 가문을 간략하게 다루고, 『정음발달사』, 『리두연구』, 『향가해석』 등 총 10권에 해당하는 저술의 목차와 내용을 소개하였다.<sup>3)</sup>

국학자로서의 홍기문을 다룬 것으로는 강영주의 논고가 주목된다. 강영주의 「국학자 홍기문 연구」는 국학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까지 홍기문의 지적 성장과 사회활동, 부친 홍명희와의 관계를 주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 후속인 「국학자 홍기문 연구 2」는 1930년대 홍기문의 언론 활동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으며, 국학연구에 대해서는 국어연구를 위주로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sup>4)</sup>

북한에서의 연구로는 『향가해석』에 나타나는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평가한 류선창의 연구, 홍기문의 『조선신화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림종상의 연구가 있다.<sup>5)</sup> 이밖에도 홍기문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아니지만 홍기문의 아버지 홍명희에 대한 연구와 홍기문이 활동했었던 일월회 및 신간회 관련 연구를

현규, 「홍기문 어원 연구 결과의 분석 평정」, 『인문사회과학연구』 10,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양명희, 「洪起文의 국어 문법 研究」,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이상혁, 「홍기문과 원본 『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2) 최철, 「홍기문 「향가해석」에 대한 견해」, 『동방학지』 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서재극, 「홍기문이 지은 『향가해석』 평설」, 『한글』 213, 한글학회, 1991.

3) 김지남, 「북한의 ‘향가연구’ 권위자 洪起文」, 『북한』 227, 북한연구소, 1990.

4)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2-1930년대 홍기문의 언론활동과 학술연구」,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2010.

5) 류선창, 「홍기문 저 『향가해석』에 대하여」, 『조선어문』 1, 조선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1958; 림종상, 「『조선신화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력사과학』 4, 조선과학원 력사과학연구소, 1965.

통해 그의 행적을 살펴 볼 수 있다.<sup>6)</sup>

홍기문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국학연구 가운데 어문 연구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가 역사학에 대한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홍기문이 역사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통사류 등 본격적인 역사학 저서를 남기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그를 역사학자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의 저술은 1930년대 사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관의 방법론을 통해 세계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면서도, 조선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시도는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조선학운동의 관념론적 역사관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과학적 입장에서 ‘비판적 조선학’의 진흥을 주창하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당대 사학계의 거목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인 신채호의 사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한 논설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것은 사학사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sup>7)</sup>, 『三國遺事』·『高麗史』 등의 원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단군으로부터 고대국가의 성립까지를 강의 형식으로 6개월 동안 『서울신문』에 연재한 것은 역사 연구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sup>8)</sup>

본고에서는 홍기문의 국학 연구 가운데 역사연구에 주목하여 1930~40년대 사학사에 유의하며 논의하도록 하겠다. 공백으로 남아 있던 그의 역사연구를 다룸으로써 그동안 어문 연구에 편중되어 있던 그의

---

6)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2000;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김영주,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 세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남소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 홍기문, 「朝鮮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 비판」, 『조선일보』 1936년 2월 29일~3월 8일자.

8) 홍기문, 「國史講話」, 『서울신문』 1947년 2월 22일~8월 19일자.

국학 연구에 대한 업적 평가에서 벗어나 홍기문의 국학자로서의 면모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역사연구의 배경

### 1. 선대와 지인의 영향

홍기문은 1903년 9월 23일 홍명희와 민순영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명은 五曾이었는데, 1918년 항렬에 따라 기문으로 개명하였다. 그의 자는 伯經이고, 호는 袋山이다.<sup>9)</sup>

서울에서 태어난 홍기문은 1910년 조부 홍범식이 순국하자 부친을 따라 낙향하여 18세까지 괴산에서 자랐다. 조부 홍범식의 자결 순국은 홍기문의 삶에서 최초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금산군수로 재직 중이던 홍범식은 국치를 당한 8월 29일 저녁 객사 안의 벽에 “나라가 파멸하고 임금이 없어지니 죽지 않고 무엇하리(國破君亡 不死何爲)”라는 여덟 자의 유언을 남기고, 객사 뒤뜰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자결했다.<sup>10)</sup>

홍기문은 할아버지 묘 앞에서 “몇 종형제가 되든지 돌려보라”고 하면서 “立身揚名하여 遺恨을 위로해 달라”고 당부한 조부의 유서를 기억하며, 죽는 날까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sup>11)</sup> 또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달리 자존심이 있어야 하고 인

9) 『豊山洪氏大同譜』 4, 풍산홍씨대중회 풍산홍씨대동보편찬위원회, 2008, 417~418쪽. 홍기문의 가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홍명희나 홍범식을 다룬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2000, 19~22쪽; 박걸순,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홍범식과 신채호의 민족운동 재조명』, 홍범식 순국 100주년·신채호 탄신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 10~15쪽.)

10) 박걸순,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홍범식과 신채호의 민족운동 재조명』, 홍범식 순국 100주년·신채호 탄신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 15~22쪽.

내력이 있어야 한다”<sup>12)</sup>는 부친 홍명희의 가르침은 그가 반일의식과 애국정신을 가지고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국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부 홍범식의 순국 이후 서울을 오르내리던 부친 홍명희가 3년상이 끝난 1912년 중국으로 떠나자, 홍기문은 증조부로부터 한학을 수학했다. 이는 그가 뛰어난 한문 실력을 지닌 국학자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sup>13)</sup> 그러나 일찍이 신식교육을 받은 아버지와 달리 홍기문은 정식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홍명희는 민족적 울분으로 인해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해 있던 차에 경술국치와 부친 홍범식의 순국을 겪자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학령기에 접어든 홍기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sup>14)</sup>

1918년 여름부터는 오랜 방랑을 마치고 귀국한 부친 홍명희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학문적 발전의 기회를 얻었으나, 1919년 3·1운동 당시 홍명희가 괴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중단되고 말았다.<sup>15)</sup> 당시 괴산의 만세시위에는 홍기문의 숙부 洪性燾와 종조부 洪用植도 함께 참여했으나, 홍기문이 직접 괴산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3·1운동 전부터 부친에게 해외 독립운동의 동향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소상하게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방 후 『서울신문』에 기고한 「三一運動의 民族史的 意義」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sup>16)</sup>

11) 홍기문, 「故園紀行 5」, 『조선일보』 1936년 4월 13일자.

12) 홍기문, 「아들로서 본 아버지」, 『조광』 2-6, 조광사, 1936, 184쪽.

13)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164쪽.

14)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2000, 66~72쪽;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163쪽.

15) 홍기문, 「아들로서 본 아버지」, 『조광』 2-6, 조광사, 1936, 184쪽.

16) 홍기문, 「三一運動의 民族史的 意義-民族自決運動澎湃」, 『서울신문』 1946년 3월 4일자. “3·1운동으로부터 1년 전 내 가친이 중국서 돌아와서 시골집에 있었는데 상해의 申圭植씨로부터 온 편지 중 米塵都家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던 것을 이제 새삼스레 기억하여 실로 감회가 얹지 않다.”

이처럼 부친 홍명희를 비롯한 일가친척의 3·1운동과 투옥을 지켜본 홍기문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국어연구에 착수하기로 결심한다.

내 나히 열일곱이 되든 때 그해가 바로 三一運動으로 윈 朝鮮이 들끓는 己未年인데 이 無氣無因한 靑年의 나는 와글와글한 그 속에서도 學問으로 나갈 것을 뜻 두었섯다. 애초부터 銃이나 칼이나 못 가진 우리로서 차라리 學問이 조흔 武器일듯 어렴풋시 생각하얏지마는 그 어느날 獄中에 잇는 아버지의 세간을 整理하다가 「알사쓰 少年의 이야기」란 글을 읽은 뒤부터는 나의 어렴풋한 생각이 그르지 안한 것을 確然히 自信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알사쓰 少年의 이야기」란 실상 프랑스의 愛國小說家인 「도-데」의 『最後科程』이란 短篇의 翻譯이다. 그곳 普佛戰爭 뒤 프랑스의 알사쓰가 떼이취에게 合併되는 마당에 잇서 조그마한 小學校의 文法先生이 마즈막의 教授를 마치고 나서 가장 게으르든 한 生徒에게 國民과 國語의 重要한 關係를 敎訓하는 사연이다. ‘國語를 研究하자. 그래서 億萬劫의 屈辱 속에서라도 우리 民族의 獨自인 傳統을 지키어 보자.’ 이 두 마디가 나의 父祖에 向한 나 홀로의 盟約이었다. 國語를 비롯하여 어떠한 學問에나 내 能히 내 所信을 지키어 온 것은 오즉 이 넷 盟約을 차마 저버릴 수 업든 까닭이었다.<sup>17)</sup>

홍기문이 부친의 세간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마지막 수업」은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해 불어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독일어를 가르치게 되자, 한 교사가 불어로 된 마지막 수업을 하며 국어의 소중함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감동시킨 이야기이다. 교사는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깨우쳐 주는데 홍기문은 이 부분에 크게 감명 받은 듯하다.<sup>18)</sup> 이 작품을 읽고 큰 충격과 각성

17) 홍기문, 「國語研究의 苦行記」, 『서울신문』 1927년 1월 14일자.

을 경험한 홍기문은 순국열사 홍범식의 손자로서 그리고 민족해방운동가 홍명희의 아들이자 민족정신의 보존에 기여하고자 국어연구에 착수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또한 국어연구를 비롯한 국문학·국사학 연구도 “어떠한 학문에나 내 능히 내 소신을 지키어 온 것은 오직 옛 맹약을 차마 버릴 수 없던 까닭”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국학 연구가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1947년 출판된 『조선문법연구』의 「헌서사」에서 “나의 後生들이여 청컨대 이 책을 받으라. 그나마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나라 잃은 悲憤과 痛恨으로 이루어진 것이니”<sup>19)</sup>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부친 홍명희의 절친한 벗인 爲堂 鄭寅普와 一星 李灌鎔에게 학문적 지도를 받은 것 역시 홍기문이 국학 연구에 몰두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관용이 세상을 떠난 뒤 홍기문은 그들에게 받은 學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학교 교육을 못바든 나로 하여금 오늘날 글짜나마 끄적거리게 해주신데는 물론 우리 아버지의 심혈이 기울어져 있지만은 이의 두 분 은사의 적지 않은 공도 이룰 수는 없다. 쉬운 한문책이나 문리를 터보는 것은 爲堂 선생의 덕이요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남의 말스귀라도 알아 듣는 것은 一星 선생의 수고다. 나는 지금도 그러치만 어려서는 더 한 층 괴팍하고 껍한 성질을 부리었다. 그 두 분이 모두 나를 아들같이 사랑하고 친구같이 어루만졌기에 망정이지 그러치 않았든들 그 밑에 내가 부터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로 보통의 스승만이 아니다. 일생에 못 이룰 은사다.<sup>20)</sup>

18) 홍기문, 「조선문전요령」, 『현대평론』 창간호, 1927, 96쪽. “마침 그때 나는 父親의 休紙箱子 속에서 알사쓰 少年의 이야기란 短篇小說을 꺼내어 읽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은 또테의 最後科程을 翻譯하여 둔 것이다. 國語는 그나라의 열쇠다. 지금까지도 이치지 안하는 그 小說의 한 句節이다. 國語는 그 나라의 열쇠다.”

19) 홍기문, 『조선문법연구』, 탐출판사, 1977, 4쪽.

20) 홍기문, 「噫, 李灌鎔 博士」, 『삼천리』 10-11, 삼천리사, 1938, 67쪽.

정인보는 한말에 양명학자로 이름이 높던 李建芳과 朴殷植으로부터 양명학을 배우고, 1910년대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홍명희·申圭植 등과 함께 同濟社를 조직하여 광복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0년대는 安在鴻 등과 더불어 이른바 조선학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정인보의 고대사 연구는 漢四郡의 실재를 부인하는 등 일제의 皇國史觀에 대한 정면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하고자 했던 홍기문의 국사연구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관용은 구왕실 종친의 후예로서 옥스퍼드대학과 취리히대학에서 정치사·철학·심리학을 전공한 철학박사로, 1923년 귀국하여 언론을 통한 민중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신간회운동을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홍기문에게 학문적 가르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간회운동 및 사회활동을 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sup>22)</sup> 이와 같은 배경은 홍기문이 민족운동에 가담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국학 연구의 성과를 내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 2. 해외유학과 민족운동

홍기문은 1922년 1월, 언어학에 뜻을 두고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본래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 중국에 가서 만주·몽고어 등 隣族語를 배워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당시 북중국은 군벌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사회정세가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남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탓에 만주어와 몽고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홍기문이 정식으로 언어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교에 편입

21)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31~34쪽.

22) 윤선자, 「李灌銘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7~8쪽.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sup>23)</sup>

그러나 홍기문은 정치적 격변기의 중국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조국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1928년 12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사건’으로 검거되어 심문당한 기록을 보면, 그가 1920년대 초 중국에서 “철학 연구로부터 차츰 사상문제에 빠져들어 수백 종의 서적을 섭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홍기문은 1924년 학비를 대주던 후원자가 세상을 떠난데다가 증조부 홍승목의 병이 위독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다.<sup>24)</sup>

1925년 2월, 증조부 홍승목이 타계하자 홍기문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원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학력이 전무했던 홍기문은 일본에서도 정규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단체인 일월회와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 등에서 활동하였다.<sup>25)</sup> 일월회는 국내에서 전개되던 화유회와 서울과 사이의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을 주장했다. 홍기문은 일월회에서 발행한 『대중신문』 창간호에 「무산계급의 예술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일월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sup>26)</sup>

23) 홍기문, 「國語研究의 苦行記」, 『서울신문』 1946년 1월 14일자. “十八九 때 倅이취로 留學하려고 한것도 실쌍 言語學의 研究를 目的한 것이요, 倅이취를 斷念하고 中國으로 나간것도 滿洲 蒙古 等の 隣族語의 研究를 目的한 것이다. 南中國에서 滿蒙語를 배호기가 그러케 容易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럭저럭하고 杭州 圖書館에 들어가서 中國音韻에 關한 것을 몇권 읽어둔 것이 唯一한 所得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當時의 中國은 한참 革命 氣分에 타 오르든 때다. 나도 어느 틈엔지 學問에 向한 情熱을 일으키 街頭에 對한 魅力을 더 만히 느끼게 되었다.”

24) 홍기문, 「國語研究의 苦行記」, 『서울신문』 1946년 1월 14일자; 홍기문, 「아들로서 본 아버지」, 『조광』 2-6, 조광사, 1936, 186쪽; 京西高秘 第 7378號, 「治安維持法并ニ出版法違反事件檢學ニ關スル件」, 1928년 12월 15일자;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2-1930년대 홍기문의 언론활동과 학술연구」,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2010, 255쪽.

25) 홍기문, 「아들로서 본 아버지」, 『조광』 2-6, 조광사, 1936, 187쪽.

26) 『시대일보』 1926년 6월 25일자; 「조선사상가 총관」, 『삼천리』 5-2(부

중국에서 민족해방을 위한 방도로써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홍기문은 일월회 활동을 하면서 더욱 심화된 사회주의 이론을 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실제로 일월회는 1925년 3월부터 1926년 1월까지 기관지인 『사상운동』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원전의 번역과 소개에 주력했고,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편집 방침을 변경하면서부터는 권독사출판부가 이를 담당했다. 일월회 회원이었던 그는 이러한 출판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선언』과 레닌의 『국가와 혁명』 영역본, 『농업문제 논문총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일역본 등을 소지·반포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전들을 폭넓게 탐독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1930년대 이후 발표된 그의 유물론적 역사연구 방법론이나 기타 사회주의 이론은 이를 기반으로 확립되었을 것이다.

귀국 후 홍기문은 진보적 문학예술단체인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문예창작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문단에 데뷔하지 않았던 홍기문이 카프에 가담하게 된 것은 그의 부친 홍명희가 초기 카프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sup>28)</sup> 홍기문은 이러한 아버지의 문예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해 강연을 하거나 평론을 쓰기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비중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홍기문은 1926년 12월 18일 문예운동사에서 주최한 문예대강연회에서 「유물사관과 문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카프의 기관지에 해당하는 『문예운동』에 「평단의 일년」이라는 제목으로 평론을 게재하기도 하였다.<sup>29)</sup> 『문예운동』은 『중의일보』에

특), 삼천리사, 1933, 92쪽.

27) 京西高秘 第7378號, 「治安維持法并ニ出版法違反事件檢舉ニ關スル件」, 1928년 12월 15일자;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2-1930년대 홍기문의 언론활동과 학술연구」, 『역사비평』 92, 역사비평사, 2010, 255쪽.

28)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2000, 192~194쪽.

29) 『동아일보』 1926년 12월 20일자, 「文藝運動主催 文藝講演大盛況」; 『중

목차를 소개하는 광고만 나왔을 뿐 현재는 원문이 남아 있지 않는데, 원고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발간되지 않았거나 발간 직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제3호로 추측되는 이 신년호에 실린 그의 평론은 김기진의 「창작계의 일년」, 김동환의 「시가단의 일년」과 더불어 한 해 동안 문단의 성과를 프로문학의 견지에서 평가한 비중 있는 글로 짐작된다.<sup>30)</sup>

1927년 2월 15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제휴하여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를 결성하자, 홍기문도 이에 가담했다. 신간회는 홍기문의 아버지 홍명희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심혈을 기울였던 활동의 장이기도 했다. 홍명희는 신간회를 대표하는 직책을 모두 거절하여 맡은 적은 없었지만, 신간회 결성과 그 전반기의 운영을 주도하던 핵심 인물이었다. 홍기문의 숙부 홍성희도 35명의 본부 간사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sup>31)</sup> 홍기문은 부친 홍명희의 지시로 신간회 강령·규약 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신간회 총무간사를 지낸 이승복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사상연구회라는 것이 정우회·화요회로 발전되어 결국 신간회가 되었는데 벽초가 정주 오산학교 교장에 부임해가면서 내게 부탁하기를 “내 아들 기문이와 함께 강령 작성을 비롯한 신간회의 모든 조직을 해놓게”하더군, 그래서 내 숙소에서 모든 일을 논의해나갔죠. 체코와 愛蘭 등지의 독립운동 취지를 참고하여 3대 강령이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新韓會’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당국과 절충이 잘 안 돼 벽초가 지은 ‘신간회’가 됐죠.<sup>32)</sup>

외일보』 1926년 12월 26일자.

- 30)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181쪽.
- 31) 『조선일보』 1927년 2월 16일자, 「신간회 창립대회」; 『동아일보』 1927년 2월 17일자, 「신간회 창립대회」;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94~104쪽.
- 32) 이승복선생망구송수기념회편, 『삼천 백일홍』, 인물연구소, 1974, 166쪽.

그러나 홍기문은 신간회 창립 당시 본부 간부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해 6월 10일에 설립된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간사로 선임되어 신간회 해소 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표1. 홍기문의 신간회 경성지회 활동

|    | 일자              | 대회(회합)명    | 활동                   |
|----|-----------------|------------|----------------------|
| 1  | 1927. 6. 10     | 경성지회 설립대회  | 간사로 선임               |
| 2  | 1927. 10. 17    | 총무간사회      | 선전대 특별 실행위원으로 선임     |
| 3  | 1927. 11. 22    | 정기대회 준비위원회 | 국내국외정세보고 및 의안작성 담당   |
| 4  | 1927. 12. 2     | 경성지회 강연회   | 강연(우리의 目的)           |
| 5  | 1927. 12. 10~11 | 제2회 정기대회   | 대표회원, 상무간사로 선임       |
| 6  | 1927. 12. 22    | 청주지회 설립대회  | 강연(過去, 現在, 未來)       |
| 7  | 1928. 12. 18~19 | 임시대회       | 대표회원으로 선임            |
| 8  | 1929. 7. 21     | 임시대회       | 검사위원으로 선임            |
| 9  | 1929. 12. 3~5   | 경성지회 강연회   | 강연(우리는 事件을 어떻게 볼까)   |
| 10 | 1929. 12. 26    | 상무집행위원회    | 차가인문계 연구위원으로 선임      |
| 11 | 1930. 12. 30    | 임시상무집행위원회  | 신간회 해소운동 반대 성명서 작성위원 |

신간회에 몰두하는 사이 홍기문은 사회운동가로서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신간회 운동기를 거치면서 “신간회 최대의 策士”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역량 있는 운동가로 성장한 것이다.<sup>33)</sup> 또한 그는 이 시기 의기투합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생의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함께 활동한 이관구·이원혁·김무삼

33) 홍양명, 「才人形의 洪起文氏-新幹運動 線上的 少壯闘士-」, 『삼천리』 14, 삼천리사, 1931, 29쪽.

등은 해방 후에도 언론활동이나 정당활동을 함께 했으며, 부친의 벗이자 신간회의 지도자였던 안재홍·이관용·허헌 등은 후일 홍기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sup>34)</sup>

신간회 해소 후 홍기문은 조선일보사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언론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sup>35)</sup> 이 시기 국어연구를 다시 시작한 홍기문은 『조선일보』에 국어학 관련 논고들을 게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朝鮮文學의 兩義」, 「역사와 언어의 관계」를 연재하는 등 국문학과 국사학 분야까지 연구를 넓혀갔다.

표2. 1930~40년대 홍기문의 역사 관련 저술

|   | 제 목                    | 게재지/출판사 | 연도   | 일자          |
|---|------------------------|---------|------|-------------|
| 1 | 歷史와 言語의 關係             | 조선일보    | 1935 | 2. 1~9      |
| 2 | 歷史學의 研究                | 조선일보    | 1935 | 3. 19~4. 5  |
| 3 |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 批判 | 조선일보    | 1936 | 2. 29~3. 8  |
| 4 | 麗末 兩班階級의 生成과 鄭圃隱의 活動   | 조선일보    | 1938 | 1. 23       |
| 5 | 三一運動의 民族史的 意義          | 서울신문    | 1946 | 2. 28~3. 6  |
| 6 | 鄭鑑錄의 分析的 研究            | 신천지     | 1946 | 7·8월호       |
| 7 | 國史研究의 몇가지 問題           | 서울신문    | 1947 | 1. 4        |
| 8 | 國史講話                   | 서울신문    | 1947 | 2. 22~8. 19 |

34)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188쪽.

35) 계훈모, 『한국언론연표』,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79, 660쪽; 「홍명희와 조선일보」, 『별건곤』 69, 개벽사, 1934, 19쪽; 「삼천리 기밀실-조선일보 사원」, 『삼천리』 6-8, 삼천리사, 1934, 11쪽; 「신문만담」, 『개벽』 3, 개벽사 1935, 101쪽; 조선일보사 편, 『조선일보 70년사』, 조선일보사, 1990, 6~106쪽.

### III. 역사 관련 저술과 역사인식

#### 1. 사론과 연구방법론

홍기문이 역사연구를 시작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사학계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제는 경제공황을 맞아 1931년 9월 만주를 침공하여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물질 토대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및 민족말살정책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데올로기의 분화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사학의 흐름도 크게 세 줄기로 갈라졌다.

타협적 민족주의에 호응하는 극우성향의 학인들은 대부분 일제의 동화정책을 후원하는 친일파로 전향하거나, 순수 아카데미즘을 표방하면서 역사학의 전문화와 문화사로의 시야 확대에 주력해 갔다. 震檀學會를 창설하고 실증사학을 주도한 역사가들이 후자에 속한다. 일본 또는 국내의 최고학부에서 교육받은 이들은 역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서 심화시키고 역사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1930년대의 시점에서 요구하는 민족적 과제에는 실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1930년대의 역사학에 또 하나의 줄기를 형성한 것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었다.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사 연구를 금압하고 한국사 연구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조선사편수회 소속 학자 및 관련 사학자를 동원하여 한국사 왜곡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한·일 두 나라의 시조가 같다는 ‘日鮮同祖論’, 한국이 半島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대륙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사대주의가 민족성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半島的 性格論’, 20

36)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24~25쪽;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287~290쪽; 박결순, 『국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20~324쪽.

세기 초의 한국사회를 일본의 고대사회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停滯性論’ 등 한국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을 만들어 냈다.<sup>37)</sup> 한국의 지식인들은 각자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이에 대항하였는데 크게 ‘일선동조론’이나 ‘반도적 성격론’ 등에 반박한 민족주의사학과 ‘정체성론’ 등을 극복하고 민족사의 세계사적 발전론을 제시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8)</sup>

여기서 말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사적 유물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사관으로 1920년대에 도입된 사회주의 사상이 1930년대에 심화되면서 독자적인 역사연구 방법론으로 확립된 것이다. 사적 유물론이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물질로 보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이러한 사적 유물론에 의거해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구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白南雲·李清源·全錫淡 등이 있다.<sup>39)</sup> 백남운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특수사정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본인 관학자들의 특수사관에 대항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특수사관도 비판하였다. 그들은 민족이 계급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해명함으로써 민족 개념에 내포된 계급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민족문제의 특수성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실증보다는 이론에 치우치는 한계를 지니기도 했다.<sup>40)</sup>

한편, 이들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중도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이들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는 민족주의자들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을 수렴하여 새로운 계급협동체로서의 민중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품었다. 이는 안재홍·

37)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307~310쪽.

38) 한국사연구회,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2001, 231~232쪽.

39) 오미일, 「식민지시대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5,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90~91쪽.

40) 오미일, 「식민지시대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5,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94~95쪽;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25쪽.

文一平·정인보의 주도 하에 조선학운동으로 전개되었다.<sup>41)</sup> 조선학운동은 1934년 9월, 茶山丁若鏞逝世99周年記念事業을 계기로 전면화 되었다. 물론 ‘조선학’의 개념과 연구방향에 대한 모색은 기념사업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었지만, 정립된 개념 없이 사용되던 ‘조선학’이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學’으로서의 개념 논쟁이 시작된 것은 이때 부터였다.<sup>42)</sup>

이러한 조선학운동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입장은 둘로 나뉘었다. 먼저 조선학운동의 사상적 입장이나 방법론의 영역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표지 일체를 모두 국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조선학 자체를 무시하는 등 계급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띤 입장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학운동의 관념론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조선학’의 의의를 인정하고, 과학적 입장에서의 ‘비판적 조선학’의 진흥을 주창하는 입장이었다.<sup>43)</sup>

이청원은 자신의 대표적 저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유물론에 입각한 通史인 『조선역사독본』에서 “儒敎訓話의이고 정책적인 반봉건적 조선학은 조선의 역사적 과정으로 세계사와는 전연 별개 독립적인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5000년간의 일을 탐구하는 데 열심이며, 그 공식의 천재는 단군으로 扮飾되고 영웅은 이순신의 옷을 빌어 입고 재간 있는 사람들은 茶山의 가면을 쓰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며 ‘조선학’을 비판했다.

홍기문은 조선학운동의 관념론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조선학’의 의의를 인정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조선의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족주의 진영의 비과학적·국수주의적 연구를 경계하면서, ‘조선학’은 각각의 부문적 연구 없이는 불가능하며 조선에 대한 역사의 사회적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과학적인 ‘고차적 개념’이라 하였던 申南澈과 “종래의 해석학적 특수사관의 근본적 결함

41)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24~25쪽.

42) 박결순, 『한국근대사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88~89쪽.

4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17~125쪽.

은 비과학적이라는 一語로 다한다”고 하며 특수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성을 획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金台俊의 견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홍기문의 이러한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1935년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선일보』에 게재한 「역사학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역사연구 방법론은 전체적으로 유물사관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는 역사학을 단순히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역사학을 과학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合法則性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5)</sup> 여기서 말하는 합법칙성이란 한나라 어떤 단계의 일정한 사회형태에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전 역사에 공통된 법칙을 가리킨다.<sup>46)</sup> 이렇듯 홍기문은 1935년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이 논고의 첫 회에서 유물사관의 본질과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을 취하여 역사를 연구할 때만이 객관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방법이란 유물사관의 역사연구 방법론을 말한다.

홍기문은 어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와 마찬가지로 관념론적 정신사관을 비판하고 유물사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역사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정신사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의 원동력을 운명·섭리·세계정신 등 초자연적 관념에 두거나, 영웅이나 천재의 능력 등 개인적·우연적 요소로서 역사과정을 설명하려는 정신사관은 결국 세계사적·일원론적 역사 법칙을 무시하고 도리어 얽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사적 유물론 이전의 유물

44) 신남철, 「最近 朝鮮研究의 業績과 그 再出發-朝鮮學은 어떻게 樹立할 것인가 2」, 『동아일보』 1934년 1월 2일자; 김태준, 「史觀의 批判-史學研究의 回顧, 展望, 批判 5」,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자.

45)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그의 黨派性과 方法論」, 『조선일보』 1935년 3월 19일자.

46) 최오경, 「唯物史觀의 本質考察」, 『논문집』 5, 창원대학교, 1983, 296쪽.

철학이 역사학에 있어서 결국 관념론으로 빠지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반관념론적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한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을 진정한 유물철학으로 파악하였다.<sup>47)</sup> 이처럼 역사적 합법칙성의 발견을 강조한 까닭은 우리의 역사를 세계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해할 때만이 식민사학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정체성론’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기문은 민족의 역사에서 발견된 각 단계를 조선사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일제 강점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처음으로 사회 발전 단계론적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보고, 시대를 구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당시로서는 우리 역사 전체를 원시 공동체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적 사회, 근대 자본제 사회로 선명하게 시기 구분할 만한 실증적·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사관적 공식에 우리 역사를 맞추려한 이른바 공식주의에 빠져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sup>48)</sup> 홍기문은 이러한 공식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① 역사적 합법칙성에 대한 일반적 성질도 인식해야 하지만, 역사적 각 단계에 대한 근본적 특수성도 인식해야 하며, ② 역사적 각 발전 단계에 대한 각 민족의 공통적 형태도 인식해야 하지만, 각 민족의 각 발전 단계에 대한 특수 형태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기문이 역사학의 방법론 뿐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취급하는 技術的 방법론을 강조한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는 역사학의 방법론 가운데 기술적 방법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역사학의 방법론만이 정당한 기술적 방법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당시 역사학자 대부분이 이러한 기술적 방법론을 경시하여 사료 자체에 대한 지식도 없이 자기 학설의 증거로 드는 것에만 급급한 사실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료를 취급하고 연구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

47)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精神史觀과 唯物史觀」, 『조선일보』 1935년 3월 20일자.

48) 한국사연구회,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2001, 259쪽.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9)</sup> 그는 역사적 자료의 분류법과 사료 각항에 대한 분석도 함께 서술하였다.<sup>50)</sup> 또한 역사연구에 필요한 경제학·지리학·언어학·인류학 등 보조과학과 사료학·연대학·계보학 등 종속과학에 대한 기초지식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sup>51)</sup>

홍기문은 역사학의 연구과정을 ① 자료의 수집, ② 자료의 분석적 연구, ③ 자료의 종합적 연구, ④ 연구 결과에 의한 결론의 순으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적 연구란 자료 각각에 대한 확실성과 거기에 포함된 의의를 천명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는 다시 자료가 표시하는 시대, 산출된 지역, 소유자, 자료 자체의 진위와 변천 등을 밝히는 표면적 분석과 사회적 기원과 사회의 관계 등을 밝혀내는 내면적 분석으로 나뉜다. 그는 분석적 연구는 각 부문에 따라 특수한 기술적 방법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 연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적 연구란 각종 자료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재조사를 행하고, 보충적 종합으로써 자료의 부족과 불명으로 인해 확인치 못한 점을 역사적 유추로써 드러내고, 대조를 통해 취사선택하는 것이다.<sup>52)</sup>

홍기문이 이처럼 역사의 과학적 연구를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正當한 方法論만이 歷史學者의 唯一한 武器다. 오즉 그로써 歷史의 모든 歪曲化를 擊退하고 오즉 그로써 그 歪曲化의 本質을 暴露하고 또 오즉 그로써 歷史學의 참다운 目的을 達成하기에 可能한 것이

49)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技術의 方法論에 對해」, 『조선일보』 1935년 3월 24일자.

50)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歷史的 資料의 分類法」, 『조선일보』 1935년 3월 27일자;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資料 各項에 對한 分析」, 『조선일보』 1935년 3월 28일자.

51)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補助科學과 從屬科學」, 『조선일보』 1935년 4월 3일자.

52)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分析和 綜合의 研究」, 『조선일보』 1935년 4월 5일자.

다. 지금 었던 한 民族의 歷史를 노코 兩波의 學者가 있다고 假定하자. 그런데 그 一派는 그 民族의 過去에 對하여 不利한 先入見을 가지고 잇서 그 모든 學說이 그 先入見을 中心으로 돌고 잇고 그 다른 一派는 全然 正反對의 視角을 取하여 正反對의 努力을 하고 있다고 假定하자. 不完全한 文獻과 不明瞭한 紀念品 等은 兩波에 對하여 다 각각 어느 程度의 論을 提供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前番 大戰의 責任을 聯合軍과 同盟軍의 兩側이 서로 轉嫁하려는 그것과 가타서 그들의 論據만을 가지고서는 斷案을 나리기가 極히 困難하다. 그러나 正當한 方法論 아페 그 兩波를 함께 내세워 노코 보라. 그들의 歪曲化를 判明하는 것은 勿論 그들의 本質조차도 알기가 어렵지 안하리라.<sup>53)</sup>

즉,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한 일제 관 학자들의 특수사관과 세계사적·일원론적 역사법칙을 무시하고 우리 문화를 신비적이고 감상적으로 이해하면서 독자적 특수성을 강조한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역사연구 방법론을 모두 비판하며, 그가 주장하는 정당한 방법론인 유물사관의 역사연구 방법론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물사관적 공식에 우리 역사를 맞추려한 공식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며, 우리 역사를 세계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우수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40년 8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朝鮮學의 本質과 現狀」에서 “일반적 법칙과 독자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54)</sup>

홍기문은 1935년 2월 1일~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역사와 언어의 관계」를 연재함으로써 역사연구의 한 수단으로서의 언어학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유물과 잔물

53) 홍기문, 「歷史學의 研究-두 가지의 認識的 錯誤」, 『조선일보』 1935년 3월 21일자.

54) 홍기문, 「조선학의 본질과 현상」, 『조선일보』 1940년 8월 5일자.

의 절대적 공헌을 강조하며, 언어는 잔물로써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연구의 재료로 어원의 고증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우연한 부합·同源 또는 후대의 貸借 관계가 있어 고증 과정에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연구의 다른 재료들과 비교 연구하여 사료로의 가치가 인정될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원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와 고대로부터 전래하는 풍속에 伴隨되어 다니는 언어에서 고어를 찾아내어 동계의 다른 언어와 비교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홍기문은 이 글에서 신채호의 『朝鮮史研究草』, 최남선의 『兒時朝鮮』,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의 어원고증 방법이 독단적이고 지나치게 피상적인 점을 비판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어원고증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당시 조선의 어원고증이 역사가에게는 하나의 부업처럼 알려진 동시에 언어연구가들로부터는 언어라는 영역 이외의 대상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역사가와 언어연구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sup>55)</sup>

1930년대 일제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적 욕구, 즉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에 대한 대응이자 아직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조선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계급주의적 경향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를 국수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조선학’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홍기문은 조선학운동의 관념론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조선학’의 의의를 인정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비판적 조선학’의 진흥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는 홍기문의 부친 홍명희가 조선학운동을 주도한 안재홍·문일평·정인보와 절친한 관계였고, 홍기문이 직접 안재홍·문일평과 함께 신간회운동에 참여하고, 정인보에게 학문적 지도를 받는 등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남달리 민족의식과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한 홍기

55) 홍기문, 「歷史와 言語의 關係」, 『조선일보』 1935년 2월 1일~9일자.

문의 인식기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신채호 사론에 대한 비판이나 단군 신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 2. 신채호 사론의 비판

홍기문은 단재의 순국 직후인 1936년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조선일보』에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學說의 批判」이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단재의 역사학에 대한 평론을 게재하였다. 이 평론은 신채호의 역사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는 단재의 순국 전에도 『조선일보』 1935년 2월 5일자에 게재한 「역사와 언어의 관계」에 ‘申丹齋의 語源考證을 檢討함’이라는 부제를 달고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에 나타난 어원 고증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홍기문은 역사연구에 있어 신채호의 지대한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과학적 고증을 거치지 않은 그의 어원 고증에 대해서는 통렬한 비판을 내렸다.

歷史에 對한 그의 貢獻이 이로써 全然 抹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흔 論據의 瀕危를 免키 어려운 것이 事實이다. … 三國志 東夷列傳 校正에 잇서 相當히 識見이 노푼 考證을 行하고 잇는 그로서도 語源考證에 이르러는 오죽 알시고 가벼운 解釋에 甘心하고 말았다. 萬一 그로 하야금 좀더 語源의 科學的 考證을 注意케 하였다면 歷史에 對한 그의 貢獻이 現在보담 좀더 巨大치 안했을까 생각한다.<sup>56)</sup>

홍기문은 신채호가 어원의 과학적 고증을 주의하였다면 역사에 대한 그의 공헌이 좀 더 거대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채호의 어원고증에 대한 비판은 홍기문 보다 7년 앞선 안학의 「申采浩氏

56) 홍기문, 「歷史와 言語의 關係-申丹齋의 語源考證을 檢討함」, 『조선일보』 1935년 2월 5일자.

의 吏讀解釋」이 있다. 이는 단재의 「吏讀文名詞解釋」<sup>57)</sup>에 대한 비판으로 1928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중외일보』에 연재되었다.

안확은 신채호의 이두 해석 방법을 자기경험에 의한 주관적 해석으로 평가하고, 여섯 가지의 예를 들어 비판 하였다. 그러나 그는 “氏의 사론에 있어도 고려의 여지가 多하나 그 탁견을 출함에는 경탄하는바 오 또한 氏의 논제는 다 필요한 제목에 在함에 此亦是善타하는바라”고 하며 신채호의 역사연구를 높이 평가하였다.<sup>58)</sup> 홍기문과 안확은 신채호의 어원고증을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역사연구에 있어서 어원고증만을 근거로 드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서 그 관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문일평과 안재홍도 신채호의 역사학을 언급하였다. 1929년 6월, 『조선사연구초』가 간행되자 문일평은 「讀史閑評」이라는 연재에서 신채호를 ‘조선혼을 부르짖던 애국자’라 칭하며 “그의 이론이 반드시 모두 肯綮에 맞는지, 그의 연구가 반드시 모두 과학적이라고는 할는지 모르나 그의 견식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투철한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sup>60)</sup> 안재홍은 신채호의 역사학이 “진보된 역사과학 또는 사회경제사관을 지니지 못하였지만, 사학자로서 필요한 고증과 外他の 비교연구에 의하여 그 전모에서는 多分の 과학자적 영역을 개척”했다고 평가하였다.<sup>61)</sup>

57) 신채호, 「吏讀文名詞解釋」, 『동아일보』 1924년 10월 20·27일자, 11월 3일자.

58) 안확, 「申采浩氏의 吏讀解釋 1」, 『중외일보』 1928년 3월 6일자; 안확, 「申采浩氏의 吏讀解釋 3」, 『중외일보』 1928년 3월 8일자.

59) 홍기문, 「歷史와 言語의 關係-語源究明의 必要와 그 困難點」, 『조선일보』 1935년 2월 2일자. “要컨대 歷史研究에 잇서 다른 모든 材料와 함께 言語를 材料로 삼는데는 구태어 異議가 업는바로되 오즉 言語를 唯一의 材料로 삼는데는 어대까지 反對치안할 수 없다.”; 안확, 「申采浩氏의 吏讀解釋 3」, 『중외일보』 1928년 3월 8일자. “語으로써 歷史의 事實을 論키는 極히 危險한 일이라 또한 語를 年代學에 注意치 아니키 不可하다.”

60) 문일평, 「讀史閑評 10」, 『조선일보』 1929년 10월 16일자.

61) 안재홍, 「申丹齋說私觀-尊貴한 그의 史學上的 業績-」, 『조광』 2-4, 조광사, 1936.

홍기문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 역사학의 선구자인 신 단재학설의 비판」을 통해 신채호의 역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시도하였다. 홍기문은 그의 부친 홍명희가 단재와 절친한 관계로 단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평론에서 신채호를 ‘가친의 가장 가까운 친우요 또 나의 가장 경모하는 선배’라고 소개하였다. 실제로 홍명희는 신채호가 순국하자 「哭丹齋」라는 弔辭를 쓰기도 했으며, 이어 「上海時代의 丹齋」라는 회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62)</sup> 따라서 홍기문은 그의 부친을 통해 단재의 성격이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그 원고를 본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sup>63)</sup>

홍기문은 단재의 원고 가운데 『조선사연구초』만을 타인의 가감이 없는 신채호의 본의를 잘 보여주는 신빙할 수 있는 원고라고 인정하였다. 단재의 초기 역사연구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개화 자강주의 사상에 입각한 영웅 중심 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기에 단재는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을 쓰고 많은 논설에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웅이 출현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주자학이나 전통적 舊史에 대한 비판이 철저히 못한 시기였다.<sup>64)</sup> 따라서 홍기문은 단재가 양계초의 『中國歷史研究法』을 접하고, 그의 역사연구 방법을 포함한 사학 이론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던 시기에 저술된 『조선사연구초』의 의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홍기문은 단재를 조선 역사학의 연구를 진흥시킨 선구자이자 천재적 眼光의 소유자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신채호의 관념론 사학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신채호가 사상의 추향 여하가 민족의 성쇠를 결정한다고 하고, 모종의 사건이 그 사상 추향에 영향을

62) 홍명희, 「哭丹齋」, 『조선일보』 1936년 2월 28일자; 홍명희, 「上海時代의 丹齋」, 『조광』 2-4, 조광사, 1936년.

63)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1」, 『조선일보』 1936년 2월 29일자.

64) 이만열,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0, 161~164쪽.

준다고 하며 묘청의 서경전역을 강조하고, 또한 역사를 我와 非我的 투쟁에 의한 심적 상태의 기록이라고 서술한 『조선사』를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을 유사 이래 역사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계급대립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막연한 개념으로 심상하게 포섭시킨 신채호의 학설을 비판하였다. 홍기문은 이 같은 신채호의 사학을 종래 관념론사가로부터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혹평하였다.<sup>65)</sup> 홍기문의 신채호 사학에 대한 비판은 철저한 유물론사학에 입각한 것으로 이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그는 歷史의 原動力이 物質的 生産力에 노히어 있다는 것도 理解치 못 하였고 또 有史後의 歷史가 階級對立의 歷史라는 것도 理解치 못 하였다. 그래서 그의 歷史學은 恒常 그 當時 그 社會의 가장 重要한 生産關係에 對하여 全然 關心도 가지지 안코 오죽 國家의 分合이라든지 國威의 消長이라든지 宗教思想의 變易이라든지 乃至 英主의 偉蹟이라든지 名將의 戰功이라든지 等等 皮相的 現象을 어루더듬기에 終始하였다. 朝鮮史研究草를 한번 보라. 萬一 그것은 各 部門 斷片斷片의 研究論文을 모은 것으로 또 좀 다르다고 할진댄 다시 朝鮮史를 보라 卍丘儉의 來侵, 隋唐의 敗戰을 말하기에 汲汲할뿐 三國時代의 經濟生活 내지 階級關係 가튼 데로는 눈을 돌리지 안했다.<sup>66)</sup>

홍기문은 역사의 원동력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력에 있고, 유사 이래 역사는 계급대립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유물론사관에 입각하여 역사의 추진력을 초자연적 관념에 두거나, 영웅이나 천재의 능력 등 개인적·우연적 요소로서 역사과정을 설명하는 관념론적 역사관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65) 박결순, 「1920년대 申采浩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朝鮮史研究草』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50, 호서사학회, 2008, 134~135쪽.

66)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2」, 『조선일보』 1936년 3월 1일자.

신채호는 『조선사』 제2편 제1장 제2절에 ‘조선족의 東來’라는 제목으로 조선족의 동래 경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홍기문은 신채호가 인류학·언어학·고고학·토속학·비석학 등 보조과학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고, 인류 발생지에 대한 학설도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이유로 그의 영역 비정을 독단이라고 지적하였다.<sup>67)</sup>

홍기문은 신채호의 관념론적 역사관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한편, 일제에게 강제로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신채호의 노력이 결국은 그를 관념론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추론하였다.<sup>68)</sup> 실제로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최대 목표는 식민사론의 피해를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유지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정신주의적 역사 인식, 그리고 일종의 투쟁 주의적 역사인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날 민족사의 영광스러웠던 부분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일종의 복고주의적 방법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증의 취약성도 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sup>69)</sup> 단재 또한 자료의 해석과 역사의 서술에 있어서 체계성·종합성·객관성·사실성을 강조했으나 그 주장을 차분히 역사 서술에 적용했을 정도로 안정된 연구 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했고, 더구나 민족 독립의 방편으로서의 국사연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도 있어서 자연히 자신의 연구 자세를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사연구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체계성·종합성·객관성·사실성은 독립운동의 방편으로서의 국사학이 가져야 할 교조성과 당위성에 가려지는 일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sup>70)</sup>

홍기문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관념적 역사관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 가져온 한계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신채호의 역사

67)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4」, 『조선일보』 1936년 3월 4일자.

68)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3」, 『조선일보』 1936년 3월 3일자.

69) 한국사연구회,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2001, 246쪽.

70) 이만열,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0, 160쪽.

연구 목적, 즉 역사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 점은 찬성하였다. 다만 과학적 고증의 부족과 우리 문화를 신비적·감상적으로 이해한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홍기문은 신채호에 대하여 누구든지 단재의 저작을 읽는다면 그와 같은 創見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단재 이후 그와 동일 내지 유사한 경향으로써 조선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단재를 網隋할 사람은 실상 몇몇이나 되는가? 라고 반문하며 조선 역사학계에서의 단재의 선구적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古史上 史讀文名詞 解釋法」과 「三國志 東夷列傳 校正」, 『三國史記』에 대한 그의 교정과 각 편에 흠어져 있는 사료의 고증을 들며 신채호가 거대한 사료 고증학자임을 밝히고, 그의 업적을 정당히 계승할 과학도에게 그의 저작의 필독을 권했다.<sup>71)</sup>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법」에 대해서는 비록 문헌에만 치우치고 항목의 구별이 정밀하지 못하며 독단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신채호가 제시한 여섯 가지 해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개의 언어에 대하여 독자적 해석을 내린 사람은 허다하지만 일정한 방법을 거쳐 체계 있는 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단재가 처음이라며 단재의 연구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72)</sup>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1편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학계의 막대한 보배’라고 극찬하며, 그 자구 교정에 대한 여섯 가지 개요를 소개하였다.<sup>73)</sup> 『삼국사기』의 교정에 대해서는 극도의 중요를 금치 못하는 터로 어조의 격심함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교정 작업을 했던 선배들과 함께 단재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東西 兩字

71)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5」, 『조선일보』 1936년 3월 5일자.

72)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6」, 『조선일보』 1936년 3월 6일자.

73)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7」, 『조선일보』 1936년 3월 7일자.

의 相換에 대해서는 단재의 연구가 좀더 考究를 요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74)</sup>

결국 홍기문은 신채호의 관념론적 역사관과 어원 고증에 있어서의 몇 가지 독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사료고증학자나 문헌 학자로서는 성공한 인물로 평가했다. 즉, 단재의 학설을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으나 문헌고증과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그의 역사연구와 해석의 방법론은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5)</sup>

### 3.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자들은 단군혈통과 단군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민족주의의 핵심에 담고 있었다. 민족주의 역사가들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정체 의식을 보급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단군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sup>76)</sup> 이는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의 실체를 신화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고조선의 시작을 중국에서 이주해온 箕子와 衛滿으로 주장하는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羅喆 등은 1909년 서울에서 檀君敎를 창립하여 민족주의를 신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였다. 단군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新敎, 즉 단군신앙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창립이 아닌 重光을 표방했다. 단군교의 교리는 환인·한웅·단군을 三神一體로 해석하고, 삼신의 가르침인 홍익인간 이념을 더욱 부연설명하여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 또한 그들은 삼신이 우주의 조물주이자 인류의 조상이며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빛나는 역사를 창조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74) 홍기문, 「朝鮮 歷史學의 先驅者인 申丹齋 學說의 批判 8」, 『조선일보』 1936년 3월 8일자.

75) 박결순, 「1920년대 申采浩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朝鮮史研究草』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50, 호서사학회, 2008, 137쪽.

76)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236쪽.

역사의 근거를 「古記」에서 찾았다. 따라서 교리서는 역사서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단군교는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大宗教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교리서를 발간했는데, 이는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박은식·신채호·이상룡 등의 역사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77)</sup>

조선학운동을 주도하던 안재홍·정인보 등도 단군 연구에 집중하였다. 안재홍은 “단군과 단군시대가 현하 어용학자들에 의하여 부정 말살되고 있는 만큼, 朝鮮史壇에서 문제된다 하면 조선인의 학구적 양심은 여기에 잠자코 있을 수 없다.”<sup>78)</sup>며 일제 관학자들이 부정하고 왜곡한 단군의 실재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단군을 “국가적 형태와 요소를 갖추어 역사적 고귀한 생장의 胚種을 지었던 구원적인 史上의 존재자”라고 하며 단군이 민족의 시조이며,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라고 규정하였다.<sup>79)</sup> 그리고 언어학적 방법으로 지명을 비교함으로써 단군조선의 실재를 고증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이 夫餘, 三國으로 계승된다고 하여 민족사의 계통을 단일화 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인보도 마찬가지였다. 정인보는 여기에 더하여 조선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 즉 사관으로서 민족정신, ‘얼’을 제창하기도 하였다.<sup>80)</sup>

그러나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민족의 상징으로 강조하는 단군신화 역시 지배계급의 통치이념 및 계급 관계를 반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였다.<sup>81)</sup> 백남운은 “단군신화는 문헌에 나타나는 最古의 건국신화인 만큼 귀중한 사료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

77)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240~242쪽.

78) 안재홍, 「檀君과 朝鮮史의 價値-開天節에 臨한 一論點」, 『조선일보』 1930년 11월 23일자.

79) 안재홍, 「檀君과 朝鮮史-學徒로서 가질 態度」, 『조선일보』 1930년 7월 5일자.

80) 전윤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운동 연구-방법론의 모색과 민족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34~35쪽.

81) 오미일, 「식민지시대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5, 내일을 여는 역사, 95쪽.

화하고 신비화해서는 안된다”<sup>82)</sup>며 단군신화의 사료적 가치에만 의의를 두었다. 또한 그는 단군신화를 민족 발전사의 기원이 아닌, 원시적 생산 관계의 붕괴 및 문명기의 출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통해 신화 발생지의 자연 조건은 삼림지대이며, 이미 전원경작이 행해졌고 농업 생산이 중시되었다는 점, 환인상제·환웅천왕·단군이라는 식으로 계승 순위 및 호칭의 질서가 보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계급이 분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등의 분석을 제시하였다.<sup>83)</sup>

김태준은 “원시 조선사회의 男系 주장의 호칭에 불과하든 전설이 봉건사회에 와서는 그 시대의 외피를 입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그 신화의 주인공도 어느 것은 雜神으로 변하고 어느 것은 민족의 시조 처럼도 받들게 되는 것이다”<sup>84)</sup> 라고 하며 신화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았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보아 그 실재를 인정하고 그 계통을 부여에서 삼국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민족사의 단일계통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나아가 민족국가 수립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반면에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단군의 실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군 또는 단군신화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 즉 조선사의 역사적 발전단계가 원시씨족사회에서 노예제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농업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정하였다. 즉 조선역사의 체계에 원시씨족사회의 단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과정이 조선역사에도 존재했음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단군 신화에 관한 홍기문의 견해는 먼저 『서울신문』 1947년 1월 4

82) 백남운(심우성 역), 「檀君神話에 대한 批判的 見解」,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 31쪽.

83) 백남운(심우성 역), 「檀君神話에 대한 批判的 見解」,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 34쪽.

84) 김태준, 「檀君傳說의 검토-神話와 民族神」, 『조선일보』 1935년 7월 13일~14일자.

일에 게재된 「國史研究의 몇가지 問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現代의 우리로 곰이 사람이 되었다거나 한 사람이 千年의 壽를 누리었다거나 하는 그 傳說을 事實로 固執하려는 것이 아니다마는 孟浪한 神話를 神聖不可侵으로 알고 잇는 日本人이 檀君 抹殺에만 急한 것은 도리어 웃으운 現象이다. 勿論 어떠한 民族의 歷史나 흔히 이러한 序論을 前提하는 것이 事實로서 日本史나 우리 國史나 그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抹殺이나 우리의 固執이나 함께 無意味한 일이다.

要컨대 그러한 始祖가 實在한 人物이나 아니냐가 問題가 아니라 그 由來 考辨과 다른 民族의 그러한 史乘과의 比較 研究으로써 그 民族史의 어느 一面을 차차내는 것이 問題다. 우리가 檀君의 子孫이 아니라고 해서 植民地가 된 것도 아닌 것가치 또 우리가 檀君의 子孫이라고 해서 갑자기 解放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歷史란 다른 學問과 달러서 언제나 政策的 內容을 띄우기 쉽다. 여긔서 우리 先輩의 固執도 無理가 아니요, 日本人의 加增한 抹殺도 그 理由를 알 수 있다.<sup>85)</sup>

홍기문은 자국의 신화는 신성불가침으로 알고 있으면서 단군 말살에만 급급한 일본인들과 여기에 대항한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태도를 모두 비판하였다. 이는 일본인 관학자들과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특수사관을 모두 비판하는 백남운·김태준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또한 단군의 실재 여부보다도 단군 신화를 통해 민족사의 일면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둔 점도 이들과 같다.

그러나 그는 1947년 2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한 「국사강화」의 총 47회분 가운데 13회에 해당하는 분량을 단군과 관련된 사료를 검토하고 단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일본인 어용사가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민족의 始祖로써 단군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85) 홍기문, 「國史研究의 몇가지 문제」, 『서울신문』 1947년 1월 4일자.

표3. 「국사강화」에 연재한 단군 관련 논문<sup>86)</sup>

|    | 제목                 | 연도   | 일자    |
|----|--------------------|------|-------|
| 1  | 檀君의 事蹟-三國遺事와 帝王韻紀  | 1947 | 2. 22 |
| 2  | 檀君의 事蹟-地理志와 應製詩註   | 1947 | 2. 25 |
| 3  | 檀君의 아들-夫婁와 東明王의 關係 | 1947 | 3. 1  |
| 4  | 檀君에 對한 懷疑論         | 1947 | 3. 4  |
| 5  | 미확인                | 1947 |       |
| 6  | 魏書와 古記-檀君史料의 檢討    | 1947 | 3. 11 |
| 7  | 檀君에 對한 各地의 傳說      | 1947 | 3. 15 |
| 8  | 巫堂의 傳承과 檀君의 이야기    | 1947 | 3. 18 |
| 9  | 遺事와 韻記-疑句의 註解      | 1947 | 3. 22 |
| 10 | 檀君에 對한 日人史家의 論證    | 1947 | 3. 25 |
| 11 | 檀君에 對한 朝鮮史家의 各說    | 1947 | 3. 29 |
| 12 | 檀君事蹟의 分析酌 研究       | 1947 | 4. 1  |
| 13 | 檀君傳說의 分開와 淨化       | 1947 | 4. 5  |

홍기문은 먼저 『삼국유사』·『帝王韻紀』·『世宗實錄地理志』·『應製詩註』에 나타난 단군 관련 기록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삼국유사』와 『응제시주』, 『제왕운기』와 『세종실록지리지』를 같은 유형으로 보고,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사용했던 언어학적 방법론이 아닌 단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통한 고증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언어학적 방법론은 이미 청일전쟁 전후에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등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에 채용했던 것으로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역사학계에 채용되고 있었다. 홍기문은 일찍이 역사연구의 방법으로 언어학적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고, 따라서 각각의 원자료에 나타난 단군 관련 기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단군의 실재를 입증하고자 하였다.<sup>87)</sup>

86) 「국사강화」 '5회'분은 원문을 찾지 못했다.

홍기문은 「국사강화」 5회에서 ‘檀君史料의 檢討’라는 제목으로 『삼국유사』에 인용된 『魏書』와 「고기」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일제 어용사가들이 단군 말살을 목적으로 『위서』와 「고기」를 위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현행의 『위서』는 北齊의 魏收가 편찬한 것으로 북송 때 29편이 亡失된 것을 劉焯 등이 보충한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인용한 문구가 있을 만한 고구려·백제 등의 列傳이나 ‘釋老志’는 원전 그대로 전해 왔음에도 단군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 어용사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삼국유사』에 인용된 『위서』를 저자의 위조로 판단하였다. 이에 홍기문은 『위서』를 중국의 전위와 후위 가운데 현전하지 않는 전위의 것으로 보고, 후위의 것은 『후위서』라고 밝힌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唐書』도 新과 舊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등 고문헌을 대하는 저자 一然의 태도가 신중한 점을 들어 인용서의 혼동이나 착오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sup>87)</sup>

또한 홍기문은 『삼국사기』에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단군을 말살하려는 견해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平壤이란 本來 仙人王儉의 宅이니”라는 기록에 나타나는 선인왕검을 단군으로 보아 단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신라정통론자인 김부식의 입장에서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단군을 인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부식이 단군을 부정했다기보다는 회의적 입장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안정복의 『東史綱目』에 나타난 단군에 대한 회의론도 단군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황당한 내용들의 합리화를 고증하는 동시에 다시 각종의 타당한 상상을 가함으로써 단군의 새 면모를 천거하자는 것으로 해석하였다.<sup>88)</sup>

일제 어용사가들의 단군 연구에 대한 반박은 특히 주목해 볼만하다. 일제는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주체성이 결여되었으며, 한국의 역사는

87) 홍기문, 「歷史와 言語의 關係-語源究明의 必要와 그 困難點」, 『조선일보』 1935년 2월 2일자.

88) 홍기문, 「國史講話-魏書와 古記」, 『서울신문』 1947년 3월 11일자.

89) 홍기문, 「國史講話-檀君에 對한 懷疑論」, 『서울신문』 1947년 3월 4일자.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국에 종속되었다는 이른바 他律性 이론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의 실체를 신화라는 이유로 부인했다. 따라서 고조선의 시작을 중국에서 이주해온 기자와 위만으로 부터로 보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임나일본부에 의해서 통치된 것으로 묘사하였다.<sup>90)</sup> 나가 미쓰요[那珂通世]는 1894년 『朝鮮古史考』를 집필하여 단군 신화를 “僧徒의 妄說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후 시라토리 쿠라키치는 『檀君考』(1894)에서 “태백산을 묘향산이라 칭하는 것은 이곳에서 향나무가 나기 때문인데, 그 향나무를 인도의 牛頭梅檀에 비기어 이 나무에 내려온 것을 구실로 단군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안출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sup>91)</sup> 홍기문은 이들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논문 『檀君考』(1929)에 대해서는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반박하였다. 홍기문은 이마니시 류의 『단군고』에 대하여 시라토리 쿠라키치, 오다 쇼고[小田省吾] 등 여러 사람의 잡다한 말을 종합한데 지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단군 신화를 後人의 조작으로 여겨 말살하려는 그의 태도에 대하여 비록 단군 신화가 외래사상에 의하여 많이 변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근본까지 말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이마니시 류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92)</sup>

홍기문은 단군을 토속신앙의 무당으로 보고 이를 불함문화권의 초민족적인 보편적 神格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종교를 동일체로 간주한 최남선의 ‘불함문화론’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조선을 고대문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포장하였으나 실상 일본의 통치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93)</sup>

이처럼 홍기문은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단군신화를

90)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307쪽.

91) 신종원,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4쪽.

92) 홍기문, 「國史講話-檀君에 對한 日人史家の 論證」, 『서울신문』 1947년 3월 25일자.

93) 홍기문, 「國史講話-檀君에 對한 朝鮮史家の 各說」, 『서울신문』 1947년 3월 29일자.

조선사의 역사적 발전단계가 원시씨족사회에서 노예제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농업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로만 인정하였던 것에 반해 단군의 실재를 인정하고, 『삼국유사』·『제왕운기』 등 원자료에 나타나는 단군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 검토하여 식민사관을 타파하고 민족국가 수립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과학적 역사연구를 주장하면서도 과학적 입장에서 조선의 특수성을 해명하고자 한 그의 역사학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홍기문은 한국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살다간 민족운동가이자 국학자였다. 어린시절 조부 홍범식의 순국을 지켜보며 남달리 반일의식을 지니고 있던 홍기문은 부친 홍명희의 3·1운동 참여와 이로 인한 투옥을 겪음으로써 더욱 뚜렷한 민족의식의 소유자로 성장했다. 이는 장차 홍기문이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국학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봄, 홍기문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국어연구를 결심하고, 1921년 말까지 3년간 국어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일본인 학자들과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학자들의 저서를 독학함으로써 비교언어학이라는 언어학의 한 분야를 접하게 되었다. 1922년 정치적 격동기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본래의 목적인 언어학 연구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조국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써 사회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의 통일을 주장하였던 일월회와 그 지도하에 있었던 동경무산청년동맹회에서 활동하면서 더욱 심화된 사회주의 이론을 접하고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카프에 참여하여 강연 및 투고 활동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신

간회 창립 당시 부친 홍명희의 지시로 이승복과 함께 강령 및 규약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주도하였다. 이후에는 신간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하면서 신간회 주최의 각종 강연회에서 연사로 활동하였으며, 간부로 선출되어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신간회 해소 후 조선일보사에 재직하면서 다시 국어연구에 몰두하게 된 홍기문은 언어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문학과 국사학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1930년대는 일제에 대한 반발로 민족의식의 폭과 심도가 한층 확대 심화된 시기였다. 특히 1930년대 전반기 문화와 학계가 정비·발전되고 있다는 점은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 양상으로 파악되며, 그 가운데 국어학·국문학·국사학은 국학민족주의에 기초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분야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홍기문의 역사연구에 주목하여 1930~40년대 역사연구의 흐름 안에서 홍기문의 역사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일찍이 사회주의를 접하고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관을 수용한 그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역사학 연구」 등 다수의 논고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특히 당대 사학계에서 거목으로 평가받았던 신채호의 사론을 비판적·과학적으로 검토한 「조선 역사학의 선구자인 신채호학설의 비판」은 신채호 역사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는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신채호의 관념론적 역사학을 비판하였으며, 독단적인 어원 고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가하는 한편, 신채호가 역사학계에 미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료고증학자나 문헌학자서 성공한 인물로 평가했다. 홍기문의 단군 신화 연구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회경제사학자들이 단군 신화를 지배계급의 통치이념 및 계급 관계를 반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평가 하였던 것과는 달리 단군과 관련된 사료를 비교 검토하여 단군의 실재를 밝히고자 하였고, 단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일본인 어용사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논고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홍기문의 역사연구는 우리의 역사 안에서 세계사적 합법칙성을 발

견하는데 주력하고, 민족적인 표지 일체를 모두 국수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여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과는 달리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과학적 역사연구를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관념론적 역사관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하면서도 ‘조선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비판적 조선학’을 주장하였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민족의식과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홍기문의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논문접수:2012.10.15, 심사시작:2012.11.01, 심사완료:2012.11.8]

주제어 : 홍기문, 홍명희, 국학운동, 신채호

## 【參考文獻】

## ○ 자료

『개벽』, 『동아일보』, 『매일신보』, 『별건곤』, 『삼천리』, 『서울신문』, 『시대일보』, 『신조선』, 『자유신문』, 『조광』, 『조선일보』, 『중앙신문』, 『중외일보』, 『현대평론』, 『京東警高秘』(제2985호), 『京西高秘』(제7378호), 『豊山洪氏大同譜』, 『홍명희·홍용식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17호), 『홍성희 판결문』(대정 8년 형 제236호)

## ○ 논저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창작과 비평사, 2000.  
 계훈모, 『한국언론연표』,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79.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박걸순, 『한국근대사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박걸순, 『국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방응모 편, 『鄭圃隱先生誕生六百年紀念誌』,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8.  
 백남운(심우성 역), 『조선사회경제사』, 동문선, 2004.  
 서울신문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신문 40년사』, 서울신문사, 1985.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신종원,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6.  
 이만열,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 研究』, 문학과 지성사, 1990.  
 이승복선생 망구송수기념회 편, 『삼천 백일홍』, 인물연구소, 1974.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친구문화사, 1974.  
 조선일보사 편, 『조선일보 70년사』, 조선일보사, 1990.  
 한국사연구회, 『韓國史學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2001.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1994.  
 한영우, 『역사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2003.

- 합동통신 30년 편찬위원회 편, 『합동통신 30년』, 합동통신사, 1975.
- 홍기문, 『조선문법연구』, 탑출판사, 1977.
-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역사비평사, 2004.
- 강영주, 「국학자 홍기문 연구 2-1930년대 홍기문의 언론활동과 학술연구」, 『역사비평』 92, 2010.
- 강현규, 「홍기문 어원 연구 결과의 분석 평정」, 『인문사회과학연구』 10,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5.
- 김지남, 「북한의 ‘향가연구’ 권위자 洪起文」, 『북한』 227, 북한연구소, 1990.
- 류선창, 「홍기문 저 『향가해석』에 대하여」, 『조선어문』 1, 조선과학원 언어문화연구소, 1958.
- 림종상, 「『조선신화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력사과학』 4, 조선과학원 력사과학연구소, 1965.
- 박결순, 「1920년대 申采浩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朝鮮史研究草』를 중심으로-」, 『호서사학』 50, 호서사학회, 2008.
- 박결순, 「一阮 洪範植의 자결 순국과 그 遺訓」, 홍범식 순국 100주년·신채호 탄신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0.
- 서재극, 「홍기문이 지은 『향가해석』 평설」, 『한글』 213, 한글학회, 1991.
- 양명희, 「洪起文의 국어 문법 研究」, 『어문연구』 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오미일, 「식민지시대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역사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25, 내일을 여는 역사, 2006.
- 윤선자, 「李灌鎔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0,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 이기문, 「言語 資料로서 본 三國史記」, 『진단학보』 38, 진단학회, 1974.
- 이상혁, 「홍기문과 원본 『訓民正音』의 번역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2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 이용백, 「현대관 ‘지봉유설’을 대하는 듯」, 『창작과 비평』 96, 창작과

- 비평사, 1997.
-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 최오경, 「唯物史觀의 本質考察」, 『논문집』 5, 창원대학교, 1983.
- 최철, 「홍기문 「향가해석」에 대한 견해」, 『동방학지』 6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 김영주,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남소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혜경, 「홍기문 문법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전윤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운동 연구-방법론의 모색과 민족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ABSTRACT>

Hong Ki-Moon's Research  
in the 1930s and 1940s on History

Jung, Min-Young

Hong Ki-Moon was a leader of the racial movement and scholar of Korean studies in Korea's modern history. In his childhood, he saw Hong Beom-Sik's dying for his country and he got anti-Japanese sentiment in his mind. Hong Myung-Hee, the father of Hong Ki-Moon's, participated in 3·1 Independence Movement and he went in jail. That experience made him have much stronger national spirit. It also made him participate in racial movement and concentrate Korean studies.

From spring of 1919 to end of 1921, for three years he researched Korean as racial movement and then he got the opportunity to see the field of comparative linguistics when he studied the books from western countries which was translated in Japanese.

In 1922, he went to China, which was thrown into turmoil of politics, to study the advanced culture and he naturally accepted socialism as the way to save his country. After that, he joined The January Association and Alliance with Proletarian Classes of Tokyo, Japan. He got more deeply affected by socialism.

After he came back to his country, he joined KAPF and

addressed and contribute articles for it. He also led preparing the foundation of Sin Gan Hoe by the order from his father. Then he eagerly worked for Gyeong Seong Branch of Sin Gan Hoe and he became one of the leader of Sin Gan Hoe.

When he again concentrated to study Korean because of dissolution of Sin Gan Hoe, he was naturally interesting in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History.

This thesis specially talks about the meaning of the view for Hong Ki-Moon to research Korean History in 1930s and 1940s. He wrote articles about Korean History to news paper many times who early accepted socialism and historical materialism. It was specially meaningful in the Study on Korean History that he critically analyzed the historical essay of Sin Chae-Ho.

His studies were based on historical materialism but he wanted to show a peculiarity of Korean History. It was connected with Joseonhak studies that was led by An Jae-Hong, Mun Il-Pyeong, and Jung In-Bo. He wanted to study Korean History with logical and critical methods. The contribution and sacrifice of his studies were from the strong racialism.

Keyword : Hong Ki-Moon, Hong Myung-Hee, Korean studies, Sin Gan Hoe.